

2026년 ANC 말씀 세미나 가을학기
Zoom 을 통한 제자(목양/양육) 사역
김정복 목사 말씀 세미나

요한복음 강해 (1) 8/18(화)

8/18(화)-9/29(화) (7주간) 오후 7:30-9:00
(2026. 8/18. 25. 9/ 1. 8. 15. 22. 29.)

신청 및 문의 :

장대수 팀장(562-896-5701)/정훈 목사(434-229-0679)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께서 사역(事役)하실 때의 시대 배경 / 로마시대

통치/ 정치적으로
통치자/ 로마인

성경적/ 영적으로
피정복자/ 유대인과 헬라인

공관복음은 왜
마태/마가/누가 복음인가?
Son of Man(사람의 아들)/ 대속

정복자/ 통치자 :
로마인(이방인)

피정복자 :
유대인 : 히브리민족
헬라인 :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 (히브리민족)
이방인 : 로마인/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은 :
로마(가이사 아구스도)/
헬라/메데 파사/바벨론/
앗수리아/갈데아/
가나안 일곱 속들/애굽
유대인들(12 지파) :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

마태복음/사자복음(마1:1)
유대인을 위하여
마가복음은/소복음(막1:1-3)
로마인(정복자)을 위하여
누가복음/사람복음(눅1:1-5)
헬라인(이방인)을 위하여
요한복음/독수리복음(요1:1)
온 인류를 위하여
Son of God(하나님의 아들)/ 사탄

요한복음의 장 별 주제 내용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
예수 그리스도

- 1 장 : 말씀(Logos)/하나님과 예수님
- 2 장 : 혼례와 포도주/성전과 예수님
- 3 장 : 거듭남/니고데모와 예수님
- 4 장 : 갈증/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 5 장 : 치유/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
- 6 장 : 오병이어/참된양식과 예수님
- 7 장 : 예수님의 때/생수의 강(성령)
- 8 장 : 죄/율법과 예수님
- 9 장 : 눈먼 자/안식일과 예수님
- 10 장 : 양의 문/선한목자와 예수님

- 11 장 :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
- 12 장 : 참된 헌신과 예수님
- 13 장 : 참된 스승(멘토)과 예수님
- 14 장 :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
- 15 장 : 포도나무와 가지와 예수님
- 16 장 : 성령님의 오심과 예수님
- 17 장 : 예수님의 기도
- 18 장 : 불법 재판과 예수님
- 19 장 :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
- 20 장 : 예수님의 부활과 가르치심
- 21 장 : 예수님의 현현과 가르치심

1 장 : 말씀(Logos)과 하나님과 예수님

태초(太初)에 말씀(Logos)이 계시니라(요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John1:1)

이 태초(In the Beginning)는 언제인가 ?

하나님의 존재(存在)의 시작(始作)이다

태초(太初)에 말씀(Logos)이 계셨다/ 요한복음

태초(太初)에 말씀(Logos)이 계시니라
이 말씀(Logos)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Logos)은 곧 하나님(God)이시니라(요1:1)
하나님의 존재(存在)의 시작(始作) / Forever Zone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ohn 1:1)

태초(In the beginning)에 말씀(λογος)이 계시니라

태초(太初)에 말씀(Logos, λογος)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Εν αρχη ην ο λογος.
και ο λογος ην προς τον Θεον,
και Θεος ην ο λογος.(헬)

태초(In the beginning)는 언제 부터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Ev αρχη ην ο λογος. (헬)

En arke e-en ho Logos.

헬라어는 “엔 아르케”(In beginning)로
“아르케” 앞에 정관사, ho(the)가 없다.

Εν αρχη ην ο λογος. (엔 아르케 에엔 호 로고스) En arke e-en ho Logos.(헬라어)

영어는 “태초에”가 “In the beginning” 이고
헬라어는 “태초에”가 “En arke”이다.

헬라어 “En arke”는 arke 앞에 왜 정관사, ho(the)가 없을까?

영어로 “In beginning”은 문법적으로 쓸수 없으나

헬라어는 “en arke”(In beginning)을 쓸수 있다

태초에 정관사 (the, ho)가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넷째 날에 태양과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정관사(the, ho)를 쓸 수 없다.

히브리어로 “태초(太初)”는 “베레쉬트”이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베레쉬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핫산마임 웨에트 하아레츠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기에도 “In the beginning” 을 말하는

“베레쉬트”의 “베”는 불분리 전치사로 영어의 In을 뜻하고

“레쉬트”는 영어의 “beginning”으로, 근원, 시작을 뜻하며,

“베”와 “레쉬트”가 합하여 “태초”를 말하는 “In beginning” 이다.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로의 “태초”를 말한다

태초를 말하는 뻬레쉬트와 엔 아르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뻬레쉬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제 막 시간이 시작한 시간의 출발점을 가리킨다

즉 뻬레쉬트는 무(無)로부터 유(有)가 시작되어 시간이 출발했던
영원과 시간의 접촉점을 가리킨다(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창1:1)

“엔 아르케”는 시간이 아예 시작하기 이전의
영원한 때를 가리킨다

즉 “엔 아르케”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의 차원 전반을 가리킨다(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요1:1)

엔 아르케 / 영원대(Forever zone)

천지창조/ 시간대(Time zone)/ 종말

영생(永生) / 영원대(Forever zone)

엔 아르케/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현재

뻬레쉬트/ 창조(시간)의 시작과 종말

영생(永生) / 영원대(Forever zone)

창세전(創世前)에 계신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1:3-6)

말씀(Logos)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1-5)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요6-8)

말씀(Logos)은 예수님이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9-14)

말씀(Logos)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Logos)”은 하나님(God)이시고, 예수님(Jesus)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4:12-13)

말씀(Logos)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다

그(말씀/Logos)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4-5)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온 선지자,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1:6-8)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참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1:9-11)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시119:130)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 자녀”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피”으로나 “육정/육망”으로나
“사람의 뜻/의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엡1:4) / 택하심(요15:16)

섭리하심/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자녀(엡2:8/롬8:14-17)

말씀(Logos)이 성육신(成肉身)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Logos)이 육신(肉身)이 되어(Incarnation)
우리 가운데 거(居)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榮光)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獨生子)의 영광(榮光)이요
은혜(恩惠)와 진리(眞理)가 충만(充滿)하더라
(요1:14)

예수님은 인자(Son of man)과 신자(Son of God)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Son of man) :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유대인)/마가복음(로마인)/누가복음(헬라인)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 : 사탄을 심판하기 위하여(요16:11)
 요한복음(온 인류)

흔레와 포도주와 예수님 : 요 2:1-11

갈릴리 가나의 혼례와 예수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2:1-5)

혼례(결혼/Marriage)/ 포도주와 예수님

갈릴리(Galilee) 지역은
당시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소외되었던 북쪽 땅을 의미하고,
가나(Cana)는 히브리어로 갈대를 뜻하며
주변에 갈대나 늪지가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혼례는 가난한 이방인의 결혼이 분명하다.
당시 혼례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요2:3)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gunai(헬) :

당시 문화권에서는

결코 무례하거나 낮추어 부른 말이 아니고,
친근함과 존중을 담은 귀부인이나 여성에 대한 존칭/높임 말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요2:4)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때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요2:5)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예수님의 첫 표적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2:6-11)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 혼례에서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이다.

포도주는 신랑과 신부는 물론 모든 하객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음료이다

혼례와 포도주와 기쁨의 관계 : 혼례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례에 기쁨이 없어 졌다는 뜻이다

혼례는 가정의 시작이다. 가정의 시작부터 기쁨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사,

신랑과 신부와 연회장과 모든 하객들에게 다시 “기쁨”을 주신다.

참된 기쁨(Joy)은 어디서 오나?

참된 기쁨은 예수님/성령님이 주신다.

“성령의 열매”에 “기쁨(Joy)”이 있다.

성령 충만할때에 우리에게 “기쁨(Joy)”이 있게 된다

참된 기쁨/행복은 이 세상에는 없다

“혼례”는 “가정”의 시작이고,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참된 기쁨”은 자연산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서 만들어 주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실 때에 나와 내 가정에 참된 기쁨이 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호2:19-20)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열 처녀의 비유(마25:1-15),

나는 그의 신부가 될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계19:7-9)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는 없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

개인의 기쁨/행복, 가족의 기쁨/행복, 가정의 기쁨/행복은 모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전1:2-3)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 요2:13-22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2:13-17)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2:18-22)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1) 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나?

당시 유대교는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제도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

2) 너희가 유월절에 드리는 제물은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되
흠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라.(출12:5)

집에서 키운 양이나 염소를 성전의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오면,

여러가지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

성전에서 다시 비싼 값으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바치게 하였다.

성소와 지성소는 어떠한 곳인가?

따라서 성전 안은 제물을 교환 하거나, 사고 파는 장터가 되었다.

예수께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마21:12-13, 요2:16)

모세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

성소 안에는 금 촛대와 금 떡상과 금 향단이 있는 거룩한 지상 교회를 뜻하고,

지성소안에는 그룹들과 속죄소와 법궤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천상 교회를 뜻 한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마27:50-51),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히10:19-20)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聖幕, Tabernacle)

하나님의 사랑

성막(Tabernacle)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Church)이다

성소(The Holy Place)와 지성소(The Most Holy Place)
빛/예배/말씀/기도/찬양

마 당
안수/죽음
피흘림

번제단
오대제사/속죄

물두멍
회개

성막문
구원의 문
예수

어린 양
제물

성막(聖幕, Tabernacle)



성소(聖所)와 지성소(至聖所)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휘장이 찢어지다

등대
빛

구름
하늘보좌

속죄소
대제사장의
기도

법궤/ 십계명
말씀/ 하나님

향단
기도

지성소

천상교회

제사장
예수님

떡상
말씀

성소

지상교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1:22-23)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21:22-23)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3:16-17).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6:19-20)

